

장성호 일원 호남권 최대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

郡, 수변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회

2700억 투입 2282㎡에 연수·레포츠 시설 갖춰

장성호 일원을 호남권 최대의 호반 관광명사로 조성하는 '장성호 수변개발사업'의 밑그림이 나왔다.

6일 장성군에 따르면 지난 5일 군청 상황실에서 김양수 군수와 박재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비롯한 용역업체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성호 수변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김양수 군수의 간단한 경과보고와 함께 용역사의 추진사항 보고,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보고회에서 박재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저수량을 보유하고 있는 장성호는 관광지 개발할 무궁한 가치를 지녔다"며 "장성군과 긴밀히 협조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호 수변개발사업은 총사업비 2750억원을 투입해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장성호 일대 2282㎡에 연수와 휴양, 레포츠를 아우르는 호남 최고의 체류형 복합 휴양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연수휴양시설로는 공공기관 연수원과 학생·교직원 수련원, 가족 및 별장형 콘도, 레이크 워터파크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군은 인근 광주·전남·전북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교육원 및 연수원과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연수휴양시설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골프휴양시설로는 18홀 대중 골프장, 클럽하우스, 골프빌라 등이 조성되고, 레포츠시설로는 수상레포츠센터, 인공암벽, 서바이벌장, 스마레저

타운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경관체험시설로는 관광안내센터, 수변카페, 수변공원, 관광생산지기 조성되며, 수변휴양시설로는 특산물 체험장과 오토캠핑장, 체험농장 등이 들어설 전망이다.

김양수 군수는 "지역의 미래성장 동력이 될 수변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왔다"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정남진 로하스타운' 6월 민간사업자 공모

은퇴자 등 생태주거단지

2019년까지 단계 추진

장흥군이 은퇴자나 귀농·귀촌자를 위한 친환경 생태휴양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정남진 로하스타운 사업'과 관련 이달 안으로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안양면 기산·비동리 일원에 233만㎡ 규모로 조성되는 정남진 로하스타운은 1500여 세대가 입주가능한 대규모 주거단지,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6월 군에 따르면 사자산 기슭에 조성될 로하스타운은 의료, 교육, 문화, 상업, 레저·스포츠 시설을 함께 갖추고 입주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자족 가능한 미래형 주거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로하스타운은 전남지역 내 은퇴자 도시 46곳 중 최적으로 선정돼 지난 2009년 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 수립됐으며, 군이 사업부지 총233만㎡ 가운데 67%(156만㎡)를 매입한 상태다.

/장흥=김용기기자 중부취재본부장

화순 공공도서관

평생학습 발표회

화순공공도서관은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 동안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일원에서 '2013년 화순공공도서관 평생학습 전시·발표회'를 개최한다.

화순교육지원청이 주최하고 화순군청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행복한 삶의 변화, 희망의 열쇠, 함께하는 평생학습'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올해로 4회째인 전시·발표회에는 평생학습 수강생, 관련기관 및 단체가 참여해 그동안 갖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며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갤러리에서는 한지공예, 규방공예 등 16개 분야 총 200여점의 평생교육 수강생들의 작품 전시회가 있을 예정이다.

2일간 운영되는 체험행사는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 있도록 토크, 규방공예, 필리브즈 등 13개 분야의 다양한 체험코너가 무료로 운영된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나주배·영주사과 팜투어

을 수확기 때 본인이 씌운 배를 본인의 손으로 수확할 수 있는 배따기 체험 기회가 제공된다.

나주시가 나주배의 우수성을 알리고 나주배·영주사과 공동 마케팅 강화를 위해 최근 대도시 소비자와 유통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배 봉지씌우기 체험을 위주한 팜투어를 실시했다. 이날 참가자에게는 가

/나주=손영철기자 ycsn@kwangju.co.

"나주쪽, 아토피·비염 등 피부염 억제"

경희대·전남대 산학협력단

나주시는 6월 "천연색산업의 활성화사업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나주쪽 효능 연구용역' 결과 나주쪽이 환경성질환이나 가축 질병에도 뛰어난 효능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추진한 '환경성질환 치료소재 개발', '나주쪽을 활용한 가축의 세균성질환 치료용 사료첨가제 개발' 등의 연구용역 결과 나주쪽의 산업화 방안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성과를 남겼다는 것이다.

경희대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형민 한의대 교수)은 우선 쪽의 주성분인 트립타르틴, 캠페놀, 인디루빈 등이 아토피와 비염

증상으로 인한 피부염의 발생을 억제하고 가려움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동물 실험결과에서 확인했다.

또 전남대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고홍범 수의과 교수)이 추진했던 '가축세균성질환 치료용 사료첨가제 개발' 연구용역에서는 나주쪽을 첨가(2%)한 사료를 돼지, 닭, 오리에게 투여한 결과 설사병의 주원인인 살모넬라균과 대장균이 급격히 감소돼 폐사율을 크게 줄였다.

나주시는 이 같은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이들 기술들을 나주시 소유로 특허로 출원할 예정이며 국내외 과학저널 등에 논문도 게재할 예정이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전북

새만금에 휴양시설 들어선다

군산시 옥도면에... 2017년까지 호텔·관광탐 등 건립

새만금 공사가 시작된 지 22년 만에 새만금 지구 내에 첫 관광휴양 시설이 들어서게 돼 새만금 관광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신시도 휴게시설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민간사업자인 (주)새만금에서 2017년까지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주

차장 일원 5만5000㎡에 총 770여억 원을 들여 휴게소와 호텔, 관광탐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올 초 열린 회의에서 철탑 철거여부와 관광탐의 디자인 등에 대해 재검토 의결이 내려지는 바람에 유보됐다가 이날 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통과된 것이다.

위원회는 새만금사업의 시급성 등을 들어 우선 착공을 허용했지만 추후 철탑을 철거하고 랜드마크인

전망타워의 디자인을 바꾸도록 권고했다.

박양래 도시계획담당은 "사실상 새만금방조제안에 설치되는 첫 휴양 관련 시설물이란 의미가 있다"면서 "아무래도 호텔과 휴게시설이 들어서면 관광객 유치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상정된 '무주기업도시 해제지역 용도변경 결정안'도 일부 내용을 조정하는 선에서 의결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박금석기자 전북취재본부장

중등교사 18개 과목 102명 선발

도교육청, 12월 7일 시험

전북도교육청은 2014년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시험 요강을 홈페이지(www.jbe.go.kr)에 사전 예고했다.

도교육청은 18개 과목에 10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인원은 정원변경,

명예퇴직 등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다.

과목별로는 국어와 수학이 각각 17명, 영어 10명, 체육 7명, 기술과 가정 6명, 역사와 지구과학이 각각 5명, 미술 2명을 뽑는다.

또 물리, 화학, 생물, 기계기술에서 각각 4명을 선발하고 일반사회, 음악,

농공에서 각각 3명, 식품가공과 조리에서 각각 1명을 뽑는다. 올해부터 임용 시험단계가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되며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3급 이상의 인증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10월18일 시험계획 등을 공고하고 10월28일~11월1일 '온라인 채용시스템'으로 원서를 접수한다. 제1차 시험은 12월 7일에 치른다.

자세한 내용은 도교육청 홈페이지 내 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주=박금석기자 전북취재본부장



육쪽마늘 수확 한창

농부들이 6일 정읍시 태인면 태창리 밭에서 육쪽마늘을 수확하고 있다. 초여름 수확하는 마늘은 밭에서 사흘가량 말려 출하한다.

/연합뉴스

'새만금 비즈니스센터' 이름 지어주세요

군산시, 24일까지 접수

군산시는 올 연말 준공 예정으로 오식도동에 건립 중인 '군산 새만금 비즈니스센터'의 명칭과 슬로건을 공모한다.

군산시는 6일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 지원과 전시·컨벤션 산업의

육성을 위해 건립 중인 비즈니스센터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대내외적인 홍보를 위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오는 24일까지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는 군산시 홈페이지(http://www.gunsa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방문이나 우편, 이메일(sonzoa@korea.kr)로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접수 마감 후 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선호도 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해 8월중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당선작은 명칭과 슬로건 분야 각각 최우수작 1편 100만원, 우수작 1편 50만원, 가작 1편 2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군산=박금석기자 전북취재본부장

단신

순창,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적극 홍보

순창군은 여성농업인이 출산할 경우 영농작업과 가사일을 대행해주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농지소유규모가 5ha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 출산(예정)일 기준

으로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출산(예정)농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180일 기간 중에서 60일까지 농가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으며, 1일 지원 기준단가는 3만6000원이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남원지역 김치가공공장 잇따라 준공

남원지역에 김치가공장이 연이어 들어서면서 지역 김치가공산업이 활력을 얻고 있다.

6일 남원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남원 최대의 김치가공업체인 C 영농법인이 법적조치로 폐업하면서 주축하던 김치가공산업이 새로운 인수업체가 최근 '춘향골 김치보감'이라는

브랜드로 김치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초부터 10여종의 다양한 김치를 생산하고 있는 춘향식품은 이미 지난해 32t의 매출실적을 올렸으며, 이달 내로 HACCP 인증을 받을 경우 올해 매출목표량인 50t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전북도, 협동조합 조기 정착 특례보증

전북도는 협동조합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저리 융자와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도내에 설립된 협동조합은 최고 3000만원까지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특히 이 자금은 도에서 이자 일부를 보전해준다. 연이율 4.35% 중 2%를 도가 대신 부담한다.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한 뒤 신용보증서를 받아 농협이나 전북은행 등에서 대출받으면 된다.

도는 이에 앞서 3월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전주=박금석기자 전북취재본부장

김호수 부안군수, 내년 국비확보 만전 당부

김호수 부안군수가 최근 월례조회를 열고 내년도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군수는 월례조회를 통해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지만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따른 살림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안은 지역적 특성상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열악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관련 사업 예산을 축소하려는 분위기로, 쉽지는 않지만 그 무엇보다 포기할 수 없다"고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안=장재용기자 jji0681@